



■ '2017 주요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고사 및 서울대 구술고사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예고보도(2017.07.24.)

7. 25(화), 2017학년도 자연계 논술 및 구술고사 분석 결과를 발표합니다.

- ▲ 7월 25일 화요일 오전 11시,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발표예정.
- ▲ 46명의 현직 교사 및 전문가가 2달 동안 2017학년도 주요 13개 대학의 자연계 논술고사 및 서울대 구술고사 문제를 분석.
- ▲ 고교과정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대학은 선행교육 규제법에 따라 엄격한 행정적 제재를 요구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7월 25일(화, 오전 11시), 서울 주요 13개 대학의 2017학년도 자연계 논술고사 및 서울대 구술고사 문제 분석결과를 발표합니다. 다만 기자회견 장소는 특정 대학교로 하되, 어느 대학이냐의 문제는 금주까지 숙고의 과정을 거쳐 7월 24일(월) 오전에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논술전형은 수도권 주요 대학의 수시모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형 중 하나이며 경쟁률도 높아 수험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전형입니다. 또한 출제되는 문제는 고교 교육과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선행교육 규제법에서 논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교와 대학간 연계를 통해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수험생의 입시 부담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된 법이므로 각 대학은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단체가 2016학년도 자연계 논술 및 서울대 구술고사 문제를 분석한 결과, 주요 13개 대학 논술고사의 14.7%, 서울대 구술고사의 34%에 해당하는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저희 단체의 조사와 상이한 결과이지만 교육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가톨릭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연세대(원주), 울산대, 한국항공대, 한양대(에리카) 등 12개 대학이 논술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해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했음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은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대학별고사 문제를 출제할 것을 법으로 규정했지만 아직까지 이를 지키지 않는 대학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교육걱정은 2017학년도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고사 및 서울대 구술고사 분석 결과 발표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대학의 관행에 대한 비판과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려 합니다.

주요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 및 서울대 구술고사 분석 문항에는 수학과 과학(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영역을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이번 분석 작업에는 학교에서 해당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46명의 현직 교사 및 관련분야에서 박사 전공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2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한 대학교의 문제를 수학과 물리는 5명이, 화학은 7명, 지구과학은 4명, 생명과학은 3명이 분석하고, 1차 판정 결과 분석자간 의견일치가 되지 않은 문항에 대해서는 2차 검토까지 실시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상세한 분석 결과는 기자회견 당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2017 주요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고사 및 서울대 구술고사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 시 : 7월 25일 화요일 11시

■ 장 소 : 연세대학교 정문

■ 주요내용

- 13개 주요 대학(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의 자연계 논술고사 및 서울대 구술고사 문제 분석 결과
- 선행학습 유발 요소인 고교 교육과정 미준수 문제, 대학과정 문제 출제, 학교 대비 불가능 문제와 논술고사 취지에 벗어나는 본고사형 문제 출제 여부가 분석 기준임
- 참여자 : 현직교사, 박사 전공 이상의 전문가 46인
- 실태 발표 후 선행교육 규제법에 따라 위반 대학들에 대한 엄격한 제재 요구할 것임.

2017. 07. 2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문은옥(02-797-4044/내선번호 501)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